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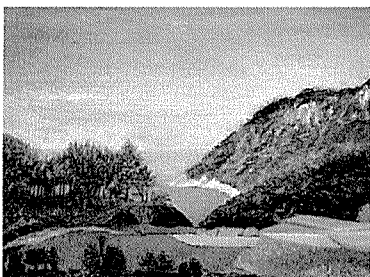
제7회 부산건축사화우회展 열려

부산건축사회 소속 미술동호인 작품 전시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미술동호회 임인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 '에당'에서 7번째 회원작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8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시회를 갖고 작품집을 발간해온 부산건축사화우회는 현재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22명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도 회원들이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히 그려온 유화, 수채화 등의 미술작품 19점을 선보였다.

화우회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회원은 전화 051-552-2023 또는 051-809-6969로 문의하면 된다.



허경원회원작 "홍포풍경"



안광모회원작 "수향"

건축계소식 archi-net

삼우설계, 세계 14위 설계사무소에 선정돼

영국 WA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설계사무소' 중 상위 랭크

삼우설계가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유일하게 영국의 유명 건축전문지인 World Architecture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사사무소에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WA誌는 지난 98년 1월호 특집에서 지난해의 매출실적과 설계조직원 등을 분석한 자체조사자료를 근거로 각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삼우설계가 세계 14위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선정됐다.

국내업체가 세계 500대 설계사무소에 포함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세계 열네 번째라는 상위 랭킹은 이제 우리 건축설계업체도 세계 굴지의 설계사무소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뜰이나 IMF로 얼어붙은 국내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14위라는 순위는 일본의 건축사사무소가 10위권내에 3개업체나 랭크된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중에서는 4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WA誌 선정 1위는 700명의 건축사를 거느린 미국의 HOK社(97년 매출액 1억6천만 달러)가 차지했으며 2위는 Gensler(미국), 3위는 日建設計, 4위는 가지마디자인(이상 일본), 5위는 NBBJ(미국)가 각각 선정됐다.

WA誌는 또 이번 조사에서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업체로 日本設計(일본)를 지목하였는데 이 업체는 1억 2천만달러의 전체매출액중 65%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誌 선정 세계 10대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사무소명/국적	건축사수(명)	97년매출액(\$)
1	HOK(미국)	700	1.4~1.6억
2	Gensler(미국)	685	1.6~1.8억
3	日建設計(일본)	684	1.8억+
4	가지마디자인(일본)	648	1.8억+
5	NBBJ(미국)	557	1.0~1.2억
6	RTKL(미국)	425	0.6~0.8억
7	SWECO AB(스웨덴)	420	1.8억+
8	Lockwood Greene(미국)	417	1.8억+
9	SOM(미국)	400	0.8~1.0억
10	日本設計(일본)	350	1.6~1.8억
14	삼우설계(한국)	319	1.0~1.2억

포스에이씨,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2등 당선

지난 1월 13일 다카시 세네갈외무부에서 시상식 개최

지난 1월 13일 세네갈 다카시 세네갈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시상식에서 (주)포스-에이.씨 심인보회원이 영예의 2등상을 수상했다. Abdou Diouf 대통령 등 세네갈정부 주요인사와 유네스코책임자, 각국 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김인국 주세네갈대사관 부영사가 심인보회원을 대리해 세네갈 국회의장으로 부터 상장과 함께 상금 F.CFA15,000,000(미화 약 3만불) 및 기념상품을 수여받았다.

(주)포스-에이.씨는 지난해 세네갈 정부가 세계건축가연맹과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다카시 마들레인만에 아프리카인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건립코자 실시한 고례기념관 국제현상설계에서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과 경쟁을 벌여 당당히 2등에 당선됐다.

서울건축학교 98년도 건축가세미나 및 정기강좌

정기강좌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
까지 주1회 열려

서울건축학교에서는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기강좌 및 건축가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건축학교가 98년도 제2쿼터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는 이번 정기강좌에는 조동일(서울대 국문과), 이애주(서울대 무용과),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등 각 분야별 강사들이 '한국학'을 주제로 강좌를 열어 2월과 3월에는 4회에 걸쳐 김영섭, 김인철, 김현, 손학식, 와르 키시(일본), 티치난(대만)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건축가세미나가 펼쳐진다.

수강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서울건축학교(종로구 원서동 김수근문화재단 내)로 하면 된다.

문의 : 763-0471, 747-3046

■ 정기강좌

- 2. 27(금) / 조동일(서울대 국문과 교수) / 우리 학문의 길
- 3. 6(금) / 이애주(서울대 무용과 교수) /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춤
- 3. 13(금) / 이건웅(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노동은(목원대 음악대학 교수) / 한국음악 미학사
- 3. 19(목) / 최영준(고려대 지리학과 교수) / 한국인의 전통적 국토관
- 3. 27(금) /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현대조각

의 이해

- 4. 3(금)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지식정보사회와 기술문화
- 4. 10(금) /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 한국학의 해체와 재구성, 탈식민주의와 정체성 정치

■ 건축가세미나

- 2. 24(화) / 김영섭 / 전통미학과 모더니즘
- 3. 24(화) / 김인철 / 없음의 미학
- 3. 10(화) / 김 현 / 프로그램을 통해 읽혀지는 추상성의 코드들
- 3. 17(화) / 손학식 와르 키시(일본) 티치난(대만)

■ 건축기행

- 기행1 / '98. 2. 28 ~ 3. 1
- 기행2 / '98. 4. 4 ~ 4. 5

경기대 건축대학원, 국내최초 건축전문대학원에 선정돼

건축설계분야 교수 임용계획 공고

지난 95년에 설립돼 건축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온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건축분야 설계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앞으로 전문학위인 건축학석사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경기대 건축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건축비전공자를 대상으로한 3년제 과정 17명과 건축관련학과 전공자 대상의 2년제 과정 33명 등 총 50명으로 각각 90학점(116시간)과 60학점(84시간)의 규정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수업은 학부전임교수 및 건축대학원 교수, 겸임 및 석좌교수, 초빙강사 등 30여

인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맡아 주간 스튜디오 운영방식으로 진행하며 방학기간 4~6주동안은 2~3회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경기대는 이번 건축전문 대학원 인가에 따라 모두 4명의 건축설계분야 교수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사립학교 교수임용 및 경기대대학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대학설계교육 또는 건축설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류접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곧 신문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나 모든 신입교수는 3년계약제로 임용해 해당년도에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용시기는 98년 3월 1일이고 연구실적(작품실적) 목록과 학력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수원캠퍼스 교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학부(02-390-5245~6)

김태오 건축사진전

2월 9일부터 서울 총무로
「후지포토사롱」에서



건축사진작가 김태오씨가 자신의 두 번째 개인작품전 「건축 속의 풍경전」을 연

다.
오는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후지포토사롱」에서 열릴 이번 사진전에서는 사진작가로 10여년의 외길을 걸어온 김태오씨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30여점의 건축풍경 사진들을 선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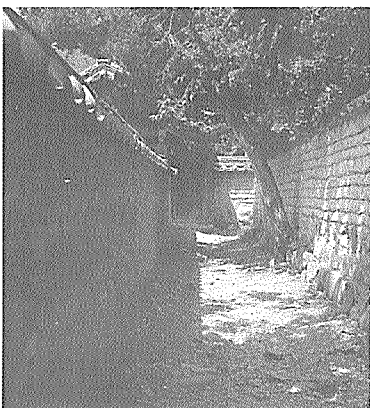
특히 이 전시회는 순수 사진적 측면보다는 오늘날 우리 주위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건축물과 그에따른 풍경의 변화를 포착해 잘못된 건축시각을 교정하고 또한 좋은 건축물이 주는 인위적 풍경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풍경 사진의 한 장르로 개척해 나가려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작가 김태오씨는 홍익대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하고 월간 플러스 사진부장을 거쳐 현재는 間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공간지 자문위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디자인과 강의를 맡고 있다.

문의 : 간스튜디오 02-579-1175,
후지포토사롱 02-266-3722

김재경 사진전 “자연과건축”

「인테크화랑」에서 2월2일부터 10일까지



10여년전부터 주로 충청·전라·경상도를 무대로 가옥과 절, 서원 등의 고건축 사진을 찍어온 김재경씨가 첫 번째 개인

사진전을 연다.

오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테크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자연과 조화된 우리의 옛 건축물을 촬영한 흑백사진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들 흑백사진들은 대형카메라의 8×10인치 필름으로 제작된 밀착프린트들로 미세한 질감과 풍부한 톤의 계조(Tone Gradation)를 통해 사진속 고건축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서구식주택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옛공간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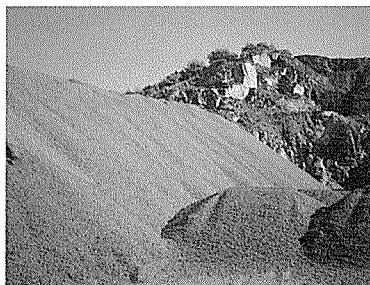
작가 김재경씨는 월간 플러스 사진기자를 거쳐 현재는 건축사진 전문 사진가로 활동중이다.

문의 : 인테크화랑 02-738-5075

건축신소재

「자옥산 황토방 온돌믹스」
철골내화페인트 「화이어콘트롤(FIRE CONTROL)」
건축계획 프로그램 「AutoPLAN」

■ 자옥산 황토방 온돌믹스



최근들어 황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일고있는 가운데 일반 모래보다 축열 능력과 열전도율이 높고 인체건강에도 유익한 황토 온돌믹스 자재 신상품이 나왔다.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옥산세라믹스는 초전도체 성분이 함유돼 있는 이

제품이 방전체의 온도분포를 일정하게 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인체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의 독소를 제거시키는 카탈라아제가 함유돼 있어 인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운석과 같이 반외암이 7배수로 농축된 물질이어서 축열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를 끼는 것으로 알려진 수맥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 원적외선 공명파장이 인체 깊숙히 스며들게 해 모세운동을 강화하므로써 고혈압이나 중풍, 관절염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자옥산세라믹스가 지난 92년에 개발해 특허출원한 이 제품은 밤 자갈 형태로 가공돼 판매되며 2cm두께의 초벌황토와 3cm두께의 마감재 황토에 맥반석을 30% 함유시켜 약 6cm로 시공하도록 돼 있다. 평당 단가는 6만2천5백원.

문의 : 자옥산세라믹스
(Tel : 0584-52-8830)

■ 철골내화페인트 - 「화이어콘트롤(FIRECONTROL)」



철골내화페인트를 적용한 「울산 삼성정밀화학」

하이템(주)가 국산재료를 사용해 국내최초로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는 화이어콘트롤(Fire Control)은 무기질 수용성 재질의 제품으로 냄새나 독성이 없을뿐 아니라 시공시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환경친화성을 지닌 철골내화페인트이다.

하이템(주)측은 특히 기존의 철골내화페인트들이 1층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철골보나 기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화이어콘트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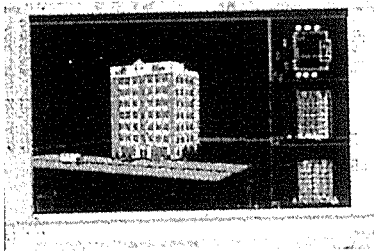
철골내화페인트로서는 유일하게 모든 건축물의 철골보 및 기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국내 최초로 내화구조지정을 받은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강한 접착력과 높은 밀도를 유지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의한 탈락이나 부서짐이 없고 외관이 미려해 별도의 외부마감재가 필요없는 것이 특징으로 내화성능에 있어서도 모든 내화구조지정 시험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화재시 유독가스나 연기가 방출되지 않고 발포성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불연재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하이템(주)

(Tel : 02-535-7230)

■ 건축계획프로그램 「AutoPLAN」



「Auto PLAN」의 투시도 기능(render, bmp)

지금까지 2차원 도면만을 주로 작업하던 건축CAD를 건축계획분야에까지 폭넓게 적용시킨 프로그램이 나왔다.

(주)부림캐드네트워크가 개발한 건축계획프로그램 「AutoPLAN」은 중소 건축설계사무소들이 그래픽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건축계획과 3차원 투시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작업수행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건축법규 검토, 건폐율 및 용적률 계산, 주차소요대수 산정, 조경면적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평면계획 설정, 프리젠테이션 목적의 3차원 모델링·투시도·애니메이션 작업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림캐드네트워크社は “건축계획에서의 법규검토라는 항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계획분야가 사실상 간단한 주택에서부터 복잡한 초고

층빌딩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위가 넓어 이에 해당되는 모든 법규를 검토해 주지는 못하지만 국토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10층인편의 근린생활 건축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좁은 대지에서 최고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니면서도 여러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의 계획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림캐드측은 또 이후 버전에서는 사업타당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인 항목들로 분리 지원하여 건설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물론 특히 3차원 입면계획 기능과 칼라링 기능을 AutoCAD의 렌더링 기능을 사용해 기초적인 맵핑과 보다 다양한 3차원 모델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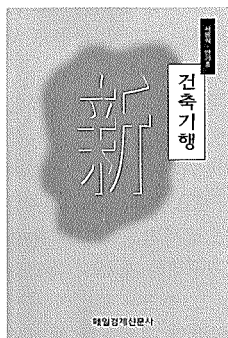
문의 : (주)부림캐드

(Tel : 02-571-2638)

건축신간

新건축기행
유리건축

■ 新건축기행



싶은 집, 갖고 싶은 건축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작년초 발간되었던 건축기행 시리즈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난해 매일경제신문에 월마다 게재됐던 ‘신건축기행’ 시리즈를 묶어낸 것으로 「살고

저자인 건축가 서용식(수목건축 대표)씨와 연기홍(매일경제 사회부)기자는 이 책에 소개된 40여 건축물에서 우리 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고자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을 단일 개체로 보기보다는 그 건물의 입지적, 역사적 환경과 조건을 함께 분석하는 보다 통시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다시보는 거리’, ‘되살아나는 거리’, ‘뒤집어 보는 거리’, ‘내일의 문화유산’, ‘다시보는 옛집’ 등 5부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는 전통한옥과 낡은 건물을 고쳐 만든 찻집에서부터 건축사적 의의가 높은 작품성 있는 근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서용식, 연기홍著/ 매일경제신문사(02-2626-442) 펴냄 / 250쪽 / 1만원

■ 유리건축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엔지니어 사무소 RFR의 피터 라이스와 영국건축가 휴 듀턴이 공동저술한 “Structural Glass”

한글판이 발간됐다. 저자인 피터 라이스는 이 책에서 유리가 더 이상 정적인 재료가 아니며 유리재료를 제대로 사용했을 때 하중에도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며 신기술을 이용한 유리건축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파리 루브박물관의 역피라미드, 런던의 체널4 본부 등 이 책에 실린 15개 각 프로젝트별 사례들은 저자인 피터 라이스가 자신의 파리 사무소인 RFR사에서 행한 유럽과 일본에서의 최근작들로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유리재료의 새로운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피터 라이스 휴 듀턴著/ 배대승譯 / 현대건축사(02-549-6444) 펴냄 / 148쪽 / 2만7천원